

# 창상(상처)과 응급조치

## 1. 창상의 형태

창상이란 신체의 조직이 손상된 상태로써 주로 피부 및 점막이 손상된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 및 형태에 따라서 다음 네 가지로 나눈다.

### 가. 찰과상

피부나 점막이 심하게 마찰되든지 또는 몹시 긁힘으로써 생긴 상처를 말하며, 찰과상은 출혈은 심하지 않으나 감염되기 쉽다.

### 나. 절창

칼, 면도날 또는 유리조각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베어진 창상이다. 이 상처는 잘 감염되지 않으나 대부분 출혈이 심하다.

### 다. 열창

둔한 물건에 타박 또는 압박되거나 혹은 면에 부딪혔을 때 생기는 창상이다.

### 라. 자창

못, 바늘, 철사 혹은 총알 등에 찢리거나 조직을 뚫고 나간 창상이다. 이 상처는 그 부위가 좁고 깊어 소독하기 곤란하며, 출혈은 많지 않아도 감염의 위험이 크다.

## 2. 위험성 및 응급처치요령

### 가. 위험성

#### (1) 감염위험성

상처에 병원균이 침입하여 번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하는데 창상은 크고 작고를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.

#### (2) 출혈위험성

창상에 의해 심한 출혈을 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. 체중 50~60kg인 사람은 4,000~5,000cc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1,000cc(약 20%)의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고 1,500cc(약 30%)의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.

### 나. 응급처치요령

#### (1) 출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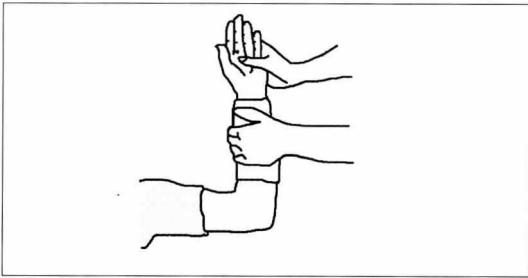
- ① 출혈이 심하지 않은 상처에 대한 처치는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다.
- ② 상처를 손이나 깨끗하지 않은 헝겊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, 영키어 뭉친 핏덩어리를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.
- ③ 흙이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준다.
- ④ 소독된 거어즈를 상처에 대고 드레싱을 한다. [상박동맥의 지압점 압박법]

#### (2) 출혈이 심한 경우

- ① 출혈이 심하면 즉시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

를 높게하여 안정되게 놓힌다.

- ② 출혈이 멎기 전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다. 수술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.
- ③ 지혈방법은 직접압박, 지압점압박, 지혈대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.



### 3. 지혈방법

#### 가. 직접압박

- ① 거어즈나 깨끗한 헝겊을 접어 상처 위에 대고 누르거나 붕대로 감아준다.
- ② 때에 따라서는 아무 헝겊이라도 상처에 닿는 부분을 소독한 후 직접 압박한다.

#### 나. 지압점압박

- ① 동맥에 손상이 있으면 상처로부터 많은 피가 내뿜듯이 나온다. 이때 직접압박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압점 압박을 병행한다.
- ② 지압점 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사이에서 동맥이 뼈 가까이 지나는 곳의 동맥을 뼈에 압박함으로써 혈류를 늦춰 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한 곳을 지압점이라고 하고 지압점 압박은 언제나 직접압박과 동시에 한다.

※ 상박동맥 지압점 : 이 지압점은 팔에서 출혈이 심할 때에 사용하며, 상박의 중간에서 엄

지 손가락을 밖으로, 나머지 네 손가락을 안쪽으로 하여 손아귀로 쥐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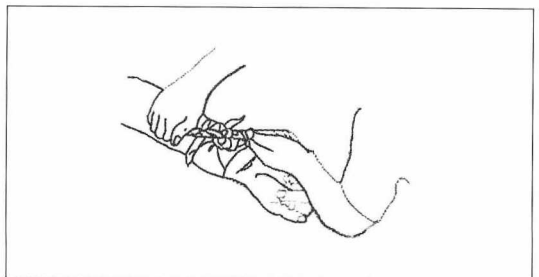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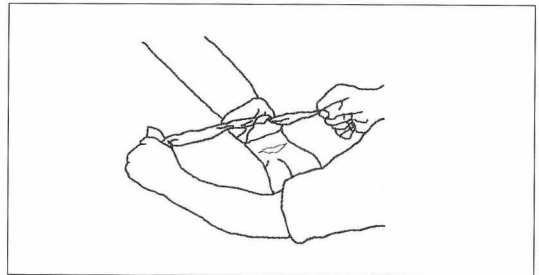
※ 대퇴동맥 지압점 : 이 지압점은 하지에서 출혈이 심할 때에 사용하며, 서혜부 중간에서 동맥을 골반에 향하여 손바닥으로 압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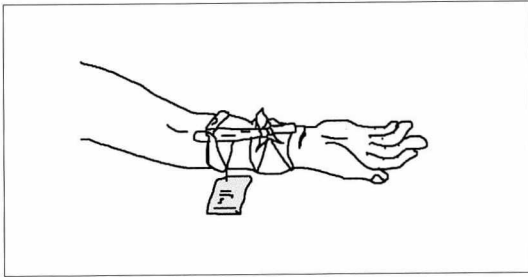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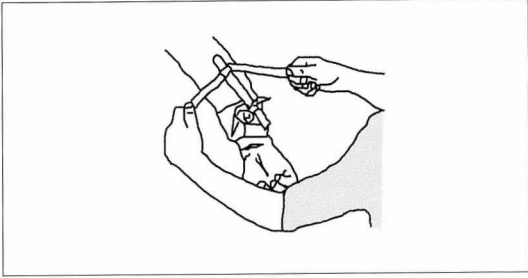
#### 다. 지혈대 사용

팔이나 다리에 심한 출혈이 있을 때, 직접압박과 지압점 압박으로도 출혈을 막지 못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지혈대를 사용한다.

- ① 지혈대는 폭이 적어도 5cm정도 되는 띠를 사용해야 하며, 상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완전 지혈이 되도록 꼭 매야 한다.
- ② 지혈대를 맨 곳은 노출시키며 맨 시간을 기록하여 붙여 두어야 한다.
- ③ 지혈대를 맨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지체없이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.
- ④ 지혈대를 매게되면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에 풀도록 한다.

※[ 손목 상처시 지압 방법 ]





#### 4. 특히 주의할 상처

특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상처는 찢린상처, 감염상처, 복부의 상처, 눈 속의 이물, 눈 언저리의 상처, 코피, 내출혈 및 내장 손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.

##### 가. 찢린 상처

###### (1) 상처의 특징과 파상풍

- ① 대개 출혈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씻겨지지 않는다.
- ②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.
- ③ 공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혐기성균이 파상풍균의 번식 위험성이 있다.
- ④ 찢린 상처의 일종인 탄상(彈傷)은 심한 출혈, 골절 혹은 내장 손상 등의 위험성이 높다.

###### (2) 파상풍균(破傷風菌)의 특징

- ① 평상시에는 말 등의 동물의 창자에서 성장한다.

② 이 균은 혐기성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땅속이나 공기 중에서 견딘다.

③ 어떠한 상처라도 들어간다.

###### (3) 파상풍의 발병과 증세

이 균의 잠복기는 2~3일로부터 2주간인데 발병하면 먼저 턱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어서 얼굴에 경련이 오며, 그것이 전신에 파급되어 사망하게 된다.

###### (4) 응급처치

파상풍균에 대한 항균주사를 맞아야 한다. 따라서 처치원은 상처에 드레싱을 해 의사에게 보내도록 한다.

##### 나. 감염상처

상처 내의 병균이 신체의 저항력이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상처 또는 그 부근의 조직 내에 번식하고 있는 상처를 말한다.

###### (1) 원인

병균은 창상 속에서 번식을 시작하므로 신체 조직은 병균이 온 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기전을 만들기 시작한다. 즉, 핏속의 백혈구는 이 기전을 형성하여 그 중 많은 백혈구는 병균과 싸워 죽는다. 만약 이 기전이 약해지면 병균은 더욱 빨리 퍼진다.

###### (2) 예방

상처의 크기에 불문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.

###### (3) 증상

감염창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감염된지 2~3일 후에 나타난다. 증상은 상처 주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고 부으며, 곱고 또 상처로부터 붉은 줄기가 나오며 심하면 임파선이 붓는다.

감염이 하지(下肢)에 있으면 서혜부(鼠蹊部 : 사타구니 옆부분)의 임파선이 붓고, 감염이 상지

(上肢)에 있으면 액하부(거두랑이 부분) 임파선이 부으며, 머리에 있으면 경부(頸部 : 턱 밑부분)의 임파선이 붓는다. 또한, 감염 상태가 악화될수록 열도 많이 난다.

#### (4) 응급처치

감염된 부분을 높이고 안정되게 눕힌다. 뜨거운 소금물에 깨끗한 헝겊을 적셔서 찬 것을 상처에 한 시간 혹은 그 이상 대어주면 좋다. 환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한다.

#### 다. 이물이 남아 있는 상처

나무조각이 살갓에 박힌 것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물이다. 그 밖에 유리조각 혹은 쇳조각이 살 속에 박혀 남아 있을 경우도 있다.

#### (1) 응급처치

만약 이물이 표면 가까이 있으면 그 주위를 흐르는 물로 씻거나 소독하고 이물을 손쉽게 들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피를 조금 내어 상처의 불결한 것을 씻은 뒤에 소독된 드레싱을 상처에 댄다. 만약 이물이 깊이 박혔으면 뽑으려 하지 말고, 그 대신 충격에 대한 예방처치를 하면서 속히 의사에게 환자를 데려간다.

#### 라. 안검 및 안구의 상처

눈의 상처는 숙련되지 못한 처치로 인하여 오히려 실명하는 수가 있다.

그러므로 응급처치원은 상처를 입은 눈이 더 이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 처치하여 환자를 의사에게 보낸다.

#### (1) 티

눈에 들어간 티는 안구를 자극한다. 처치원은 눈의 티를 무리하게 제거하려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 눈을 씻는다. 즉시 의사에게 데려갈 것이며, 눈을 비

비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. 특히 날카로운 물건으로 티를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.

#### [응급처치]

① 티는 대개 안검점막(眼瞼粘膜)에 붙어 있는 티를 제거하려면 하(下) 안검을 조심하여 아래로 끌어내리고 깨끗한 헝겊의 귀퉁이로 티를 닦아낸다.

② 티가 상(上)안검 점막에 있으면 조심하여 상안검의 속눈썹을 잡고 환자가 위를 보게한 다음 잡아당겨 하(下)안검 위에 올려 놓으면 티가 옮겨지고 눈물에 의하여 묻어 나온다.

③ 그 다음 식염수로 씻어준다.

④ 이 방법으로 잘 되지 않으면 붕대를 느슨하게 하여 눈을 보호한 다음 의사에게 데려간다.

#### (2) 안검 및 그 주위 조직의 상처

안구의 부상이 없고 안검 및 주위 조직만 손상을 입은 상처는 그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, 소독된 드레싱 또는 깨끗한 헝겊을 상처에 대어주는 처치만하여 의사에게 데려간다.

#### (3) 눈의화상

화상은 대개 열이나 약품 혹은 가스에 의하여 생긴다. 화염 같은 직열(直熱)이 눈 가까이 올 때에는 안검이 무의식중에 감겨서 안검만이 영향을 받는다.

#### (4) 안구의 상처

안구의 손상에는 가벼운 찰과상으로부터 쇳조각에 찢리는 것 같은 심한 종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. 안구 부상자는 속히 의사에게 보낼수록 그의 시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. 안구의 부상은 영원히 실명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.

#### [응급처치]

① 안구의 이물을 빼내려 하지 말고 깨끗한 헝겊을 대고 느슨하게 붕대를 한다.

② 부상자를 누운 자세로 의사에게 보낸다. 